

인권정보자료실
Md1.4

통합교육 공청회 자료집

현장중심에서의 통합교육의 현안과 대안

인권정보자료실
Md1.4

[일시] 2000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후원]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통합교육 공청회 자료집

현장중심에서의 통합교육의 현안과 대안

[일시] 2000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후원]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교육팀장

□ 진행순서 □

사회 김미숙(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교육팀장)

인사말 김기철(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회장)

주제 발표

장애학생 학부모가 바라본 통합교육의 현안과 대안
/ 김명실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사무처장)

특수교사가 진단하는 초등특수학급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
/ 김정원 (광명광덕초등학교 교사)

중등특수학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최세민 (경기기계공고 교사)

주제 토론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 - 공석

윤점룡 (교육부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종합토론

□ 자료집 목차

- 4 / 장애학생 학부모가 바라본 통합교육의 현안과 대안
김명실(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 21 / 특수교사가 진단하는 초등특수학급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
김정원 (광명광덕초등학교 교사)
- 27 / 중등특수학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최세민 (경기기계공고 교사)
- 33 / 통합교육 사례 -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사례
현장특수교육 사례

인사말
주제 발표
주제 토론
종합토론

2000년 4월 12일 3시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교육팀장 김미숙
회장 김기철
사무처장 김명실
교사 김정원
경기기계공고 교사 최세민

장애 학생 학부모가 바라본 통합교육의 현안과 대안

김명실(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사무처장)

1. 들어가는 글

최근에 들어 장애인들에게 통합교육이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사회 통합에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에서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장애아동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교육자들의 대다수는 '통합교육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과 '장애아동만을 위한 통합의 장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에게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통합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경우는 바로 원반 교사의 수용자세가 긍정적일 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모들이 '통합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교육의 질'이나 '능력의 향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을 대할 때 '긍정적인 자세로 대한다'가 바로 통합교육 성패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부모들은 장애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과 함께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일부 지역에서 장애아동들의 일반학교 입학 거부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거주지에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또 통합교육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소문으로 학생수가 몰려있던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근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입학할 학생들을 받기 위해 특수학급 2개 중 1개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장애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학교는 관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들은 전학할 것을 요구했다.

법을 강화시켜 입학거부시 학교의 장애아동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차별금지 조항을 두어 장애부모들에게 최대한 교육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정작 장애부모들은 교육현장의 냉담함과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합교육의 실상이다.

통합교육 현장의 사례를 들어 그 문제점을 짚어 보고 또 특수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안을 검토하여 올바른 통합교육이 자리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통합교육의 현안

1. 조기통합교육의 현안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물고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통합교육'이라면 이 통합교육의 시발점은 아동이 가정을 떠나 집단생활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의 통합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부터의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차후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사회는 우리 부모들이 현재 바라보는 시각보다 훨씬 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교육에서부터 통합의 중요성을 교육현장이나 부모들 모두 알고는 있지만 현재 조기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조기교육 관련 기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 통합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

표 1.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기관

교육 기관	통합여부	교육 내용	관할부처
일반유치원	통합	만 3-5세 장애인 실제적으로는 입학 어려움	교육부
특수유치학교	분리	만 3세 -5세 등록 장애인	교육부
특수학교 내 유치부	분리	만 3세 -5세 장애인	교육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부분 통합	7세 장애인	교육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분리		보건복지부
어린이 집(특수학급)	부분통합	특수학급이 설치된 어린이 집은 극히 일부	보건복지부

현재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중 치료교실이나 복지관내 조기 교실은 특별한 서비스를 요하는 곳이므로 통합/ 비통합 여부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 아동들과 동일하게 받아야 할 교육서비스나 보육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유치학교, 특수학교 내 병설 유치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등은 모두 장애아동을 일반 아동과 분리하여 교육함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리 정책이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일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통합을 무상교육을 위해 저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초중고 통합교육의 현안

가.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인식과 자세

(1) 원반교사의 자세

□ 사례 1

- 성명 : 김정현(가명), 10세, 남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장애유형 : 다운증후군

입학식 다음 날 원반 선생님이 '안 맡겠다'며 아이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으며,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자 원반 학생들에게 일제히 아이를 쳐다보게 한 후 '나가' 라고 소리치며 복도 밖으로 쫓아내기를 반복했고, 그 때마다 아이가 놀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급기야는 엄마에게 '이사를 가라'고 강요. 3월 한달 내 아이를 벌을 세웠고, 4월말부터 5월을 특수학급에서 1,2 교시만 하고 귀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감 선생님과 상담으로 원반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교육을 받다가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장애아동을 맡은 경험이 있는 원반으로 배정 받게 되었다.

□ 사례 2.

- 성명 : 허준오(가명), 10, 남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장애유형 : 자폐

원반교육 도중 장애아동이 문제의 행동을 하게되었고, 이것에 놀란 원반교사는 원반 수업시에 반드시 부모가 동반할 것을 강요하게 되었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알던 부모는 이에 하루 4시간을 함께 수업하게 되었으며, 원반수업 있어 보조교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실내의 일들을 1년 내내 챙기게 되었다.

결국 이 부모는 통합교육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장애학부모가 통합교육에 있어 가장 어렵게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원반교사의 자세이다. 물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고 반배정에 있어 일반학급의 학급인원수가 많은 상황에서 원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맡게 되는데 있어 원반 교사들은 많은 부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통합교육 시키겠노라고 사회의 벽을 알면서도 그 첫발을 내딛는 부모들에게 있어 "이런 아이는 특수학교로 가야죠", "이사 가세요" 혹은 "수업시간에 꼭 부모님이 함께 하세요" 라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요구하는 원반교사들의 태도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혹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는 있을까?' 의 걱정을 앞서게 한다.

또한 이러한 원반교사의 태도를 접할 때마다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서 교육 시키고자 야무진 꿈이 깨지는 것뿐 아니라 교육현장 교사들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하게 된다.

(2)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자세

□ 사례

전 수업시간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라는 원반교사의 지도에 한 학부모가 특수학급 교사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해보았다. 그러나 특수학급 교사는 이러한 말을 학부모에게 전했다.

"어머니 제게 이 학교에 와서 특수학급을 맡은지 1년 남짓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특수학급을 맡은 선생이 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발언할 입장이 못돼요. 사실 많은 교육 경력이 계신 분들 앞에서 갖 교직에 들어온 제가 어떤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특수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수학급 일 이외에 저에게 따로 부담이 되는 일도 사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역시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 반에 것을 가장 먼저 빼 가시려고 하는 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 다른 교사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의 중요성이 너무도 취약하고, 특수학급 교사들의 교육경력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며, 우대가산점 적용자의 경우 이로 인해 원반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학급의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특수학급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겸직하고 있어 본연의 교육에 소홀해지거나 이로 인해 원반교사와의 원활한 협의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 교사의 입지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3) 학교장이나 교감의 소극적인 자세

현재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 학교장이 원해서 설치되는 곳은 전무할 것이다. 물론 학교 내 모든 문제들이 종국적으로는 학교장의 책임이기에 학교장들은 특수학급 설치가 반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특수학급이 설치된다면 그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안에 학급이며, 장애학생은 일반학교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로 적절한 지원을 염두 해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특수학급 교사에게 별도의 보직과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특수학급의 위치를 학교 편의에 따라 변동한다든지, 특수학급의 물품은 마치 모든 학급의 물품인 것처럼 공유하거나 이탈해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특수학급 교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시하려고 할 때 학교장이나 교감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장의 자세나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특수학급이 일반학교내에 반드시 필요한 학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비장애 부모의 자세

□ 사례 1.

- 이름: 윤명호(가명), 9세, 남
- 학교: 초등학교 2학년
- 장애유형: 자폐

명호는 자폐 성향을 갖춘 아동이다.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일반학교에 취학을 하였으나 문제 행동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학교에 잠시 전학을 했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는 또다시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가 중하지 않으니 일반학교로 전학하라는 강한 권유를 받았고 이에 부모는 다시 일반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다행히 원반교사도 명호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명호를 맡겠노라고 하였기에 원반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학부모가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는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명호의 부모가 있는 앞에서 마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명호의 부모에게 “이런 애는 특수학교에 보내야지 왜 일반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거야? 만약 특수학교로 전학가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을거야”라고 폭언과 소동을 일으켰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명호가 한 아이에게 집요하게 관심의 표명을 하였던 것이 문제의 발단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 사례 2.

다음은 새학년을 맞아 첫 등교날의 한 장애학생부모의 이야기이다.

“새학년이 된 첫날 아직 저학년이니까 학교에 같이 등교했어요. 새 반이 정해지고 모두들 새반으로 입실했지요. 한참만에 교실이 정리가 되고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았더라구요. 우리 애도 교실 중간쯤에 앉아있더라구요. 교실 뒤에는 나 말고 다른 부모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내 귀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거예요. “아니 왜 저런 애하고 짝이 된거야?” 하는 어느 부모의 불만 섞인 얘기로. 아마도 우리 아이의 짝꿍 엄마였나봐요. 그때 그 뒤에서 그 얘기를 듣는 내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만 뭐라고 한 마디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입만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비장애 부모들은 원반교사들처럼 통합교육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세게 항의하거나 외면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장애아동이 통합하는 교육기관을 기피하거나 자녀들에게 장애학생과 함께 친구로 지내기, 혹은 짝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원반 선

생님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부모가 자녀를 일반학교에 취학시키는 이유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자녀의 태도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학부모의 태도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물리적 환경 문제점

(1) 특수학급의 명칭

특수학급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초등의 경우는 <특수학급> 이라 부르거나 1,2,3.의 서열식으로 부르지 않는 일부 학교에서는 <장미반>, <백합반> 등의 별칭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이란 명칭이나 <장미반> 등과 같은 특성화된 명칭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이 복도를 지나갈 때 “저 아이는 장미반 아이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장미반’ 이라는 말 자체가 학생들사이에 저급한 은어로 와전되는 일이 있다.

(2) 특수학급의 위치

특수학급의 위치는 학교에서 그 특수학급의 위상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수학급이 자리가 잡힌 학교의 경우는 고정된 학급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학교장이나 학교 내에 특수학급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중요성이 공유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급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측 입장으로 인해, 특수학급의 위치를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수학급이 위치한 곳이 소음과 음식 냄새가 나는 식당 옆에 위치하기도 하고, 채광이 안 좋고 습한 곳이거나, 한 교실을 임시 칸막이로 가로막아 두 개의 특수학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학교의 사례도 대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수학급의 위상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일 것이다.

다. 교육 행정적 지원 문제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행정이 적절한 지원이나 지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측에서도, 일반 학부모측에서도, 일반교사들에게 있어서도 환영받을 만한 교육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통합교육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전무하고, 그에 따른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지침이나 행정의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합교육의 본래의 취지는 유실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2000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향후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통합교육을 지향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를 일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수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와 같은 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통합교육 실시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진학할 상급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어렵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급 학교가 없어서 통합교육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통합교육 현실인 것이다.

단지 학교의 수만 늘린다고는 계획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몇 개의 특수학급이 생길 계획인지를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부모들도 자녀가 커가면서 일정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문제는 통합교육행정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부 행정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으나 통합교육의 위상이 학교내 정착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행정지침이 학교내에서 특수학급 위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의되었던 '특수학급 학생의 학적 관련 문제'를 보더라도 교육행정지침 하나로 특수학급 교사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전체가 혼란을 겪게되었다.

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4.) 교육내용의 문제

부모들은 이제까지 통합교육에 있어 교육의 내용이나 질을 판단할 여력이 없었다. 사실 '어떤 교육이던 통합만 된다면' 이라고 체념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통합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짧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통합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없었기에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당연한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교육부가 발표하였듯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학교 취학이 보편화된다면 당연히 교육 내용과 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에서 교육연한을 마친 이후가 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교육 내용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이러한 교육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의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치료 교육서비스를 당연히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경우는 치료 교육에 있어 학교내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에 별도의 사적 서비스 기관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직업교육의 문제이다. 통합교육에 있어 한번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해보지 못했기에 그에 적절한 통계를 내거나 문제를 점검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교육 내용을 본다면 직업교육에 대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인 기계, 전기, 상업 학교 등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기는 하나 인문고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만큼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역시 취업을 목표로 하기에 장애학생들과 통합직업교육 실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합이 가능한 장애학생들이야말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직업을 가져야 하나, 취업 초반에 일정정도 지원이 있다면 그 이후 지속적 지원이 없더라도 사회와 통합되어 자신의 일을 창출할 수 있는 장애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교육관련법

1.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검토

가.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다

1. 제 2조 3항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2. 제 15조 3항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특수교육기관임이 명시되어 있고, 일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있어 미흡한 점은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급의 법적 규정이 되어있지만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시가 없을 경우 물론 유추해석하여 일반학교의 장이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최고 책임자로 당연 귀속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 법규정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 서비스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제18조 (치료교육 등)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 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 (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의 장(일반학교 학교장) 중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교육이나 진로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은 학교장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합교육에 대해 일반학교가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다른 일면에는 법규정이 명확화 되어있지 않기에 교육관계자들이 전혀 통합교육의 내용에 대해 의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나. 통합교육의 편의가 일반학교장의 의지에 좌우된다.

제15조 (통합교육) ②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경사로, 손잡이, 화장실, 책상, 의자 등에 있어 장애학생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이 필요하며, 특별한 교구, 교재 등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교육환경상 이 모든 것을 일시에 구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구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일반학교장들이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기본법에 대한 검토

가. 통합교육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제 18조(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관한 단 한 조항이 있을 뿐이며 통합교육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3.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검토(제 7절 특수학교 등)

가. 특수학급 설치 주체에 대한 명시가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다.

제 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 대한 별도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히 통합교육이 초·중·고등 단위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특수학급에 대한 언급은 제7절에서 '특수학교 등'의 규정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별도의 절로 규정되어 있을 때 과연 해당 학교장들이 '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규정을 얼마만큼 숙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제 59조(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지원은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거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결하고 있기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IV 통합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1.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한 제언

가.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통합교육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도 특수교육진흥법에도 그 근거 조항이나 세부 조항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교육에도 속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에도 속하지 못하는 현재의 통합교육 위상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이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을 재정비하거나 통합교육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원양성과정에서의 특수교육 전공 필수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가 일반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이다. 이 부분에 있어 일반 교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교사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일일이 특수교사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교육부나 관련기관에서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대안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이해에 관한 이수과목을 개설하고 이것을 전공 필수로 하여 반드시 교육 현장에 나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대다수 교사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아동을 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부 원반교사들은 처음 장애학생을 거부했다가도 차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수 방법을 익힌 후에 별 무리 없이 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 나오기 이전에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수화되어야 한다.

다. 교원 단체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적 방안연구와 연수 실시

통합교육에 있어 일반교사들의 인식도 중요하나 학교장의 인식이나 태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학교장이 얼마나 통합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각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의 질과 위상이 달라지는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장 연수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학교장 연수는 단지 몇 시간에 소극적으로 듣는 것에 한정되어 학교장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원 단체인 '교원단체연합' 같은 교원 조직체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 고민과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 내용을 각 학교장 혹은 교감급의 교사들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에는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나 '일일 장애부모 되기' 등의 직접 경험을 통해 교육을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어야 한다.

라. 일반 학부모회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부모의 이해 선도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학부모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만의 숙제가 아니다.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학부모가 관련되어 있다.

일반학부모들이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교사 혹은 학교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통합교육기관을 기피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문제 제기보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일반학생의 교육권, 교육환경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부분에 있어 학부모들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교육권에 대해 같은 학부모이면서 고민은 없었다.

이제 일반 학부모들도 통합교육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장애학생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장애학생이 자녀의 짝이 될 수도 있고, 장애학생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정에 돌아와 부모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 단체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장애부모와 일반학부모간에 고민도 공유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

지 않았다.

같은 학부모들간에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 인식 개선이 유도되어야 한다.

마. 통합교육은 조기 교육 때부터 실시

통합교육의 첫발은 아이들이 집단생활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이다 그때부터의 통합교육이 아이가 성장하는 중도에 통합을 실시하는 것보다 가장 자연스러우며 충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기특수교육기관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지향적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분리지향적 특수교육기관보다는 통합 가능한 조기교육기관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환

가. 인식이 전환이 곧 물리적 환경 전환 수반

특수학급에 대한 환경은 특수학급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특수학급의 위상이 학교내에서 제자리를 찾는다면 물리적 환경 역시 전환 될 것이다.

나. 사회적 약자층일수록 물리적 환경은 최상급 지향

인식이 전환되면 물리적 환경도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면 물리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킴으로 사회적 인식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장소들을 양질로 변화시켜 가치 절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약자층일수록 그의 주변은 최상급의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3. 교육행정의 전환

가. 통합교육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수립

계획의 필요성은 여러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특히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 있어 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교육 효과에 있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지만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은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찾아줄 수 있으며,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장·단기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한다.

나.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육 당사자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일부 유형(정신지체, 정서장애)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만족도를 스스로 충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행정가는 장애학생을 대신하여 통합교육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계획, 교육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통합을 학부모들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상설화

현재 통합교육에 있어 교육현장가나 학부모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장애 아동(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일반 아동(학생)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좋은 학군'을 찾아가면 된다고 하나 장애아동의 경우는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측과의 갈등, 교사와의 갈등 등은 장애학부모만이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까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학교 배치·중재 등을 상시적으로 행해주는 행정 전달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있기는 하나 이 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이며, 전담 기구로 되어있지 않기에 문제 발생 시 제때에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역할에 알맞는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4. 교육내용의 전환

가. 치료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필요

교육부는 향후 통합교육에 있어 치료교육, 직업교육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밝혀주어야 한다. 이제 통합교육을 실시하던 최초의 장애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통합을 이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방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통합교육

1.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애학생의 학습 진도를 따라가도록 지원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동등한 기회를享有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사가 진단하는 초등특수학급의 현주소 및 당면 과제

발제자 : 김정원 (광명광덕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는 글

경력도 많지 않은 풋내기 교사가 이런 자리에서 좋은 사례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꼬집어 이야기 하는 것이 혹여 신뢰를 더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십년 이상을 특수학급 현장에 계셨던 선배교사들이나 동료, 후배교사들도 제가 할 이야기들과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런 자리를 빌어 꼭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특수학급의 모습들은 특수학급 교사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야 할 것들도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특수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모쪼록 이 번 기회를 통하여 교사들만이 짝사랑하는 통합교육에서 탈피하여 행정가, 일반인, 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통합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특수학급의 실정을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얘기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현장에서 느껴온 자괴감과 열등감, 피해의식을 동시에 드러내는 일의 기에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앞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II. 초등특수학급의 현주소 및 당면 과제

1. 법제도의 정비

1971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로 지금까지 특수학급의

양적 팽창은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했을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1년 당시 246개의 특수학교의 학급 수에 비하여 특수학급은 거기의 1%에도 못 미치는 1개 학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학급의 비율이 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학급의 비중이 그 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비중이 커진 만큼 과연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여기 모이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특수교사들은 분명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더러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교사연구단체에 한 번 신청해보려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제목에 초·중등 교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와 특수는 아니지요. 유치나 특수는 그래도 잘 되는 편 아닙니까?" 관계자의 대답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학교급별 체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야 할 관계자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특수교사는 부벼 볼 언덕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교육부에서조차 이럴진대 하물며 학교 현장의 관리자나 일반교사들이 특수학급을 어떻게 생각할 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교육기본법에 통합교육을 명시하는 것과 초·중등 교육법 제 59조의 통합교육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과 명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행정적 지원

해마다 3월은 모든 선생님들이 악몽을 꾸는 달이겠지만,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하고 힘든 달입니다. 혹여 우리 아이들이 원적학급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한결 부담이 덜하지만, 학교에서 업무가 많으신 부장 선생님이나, 덜 수용적인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 좀 특수반에 데려가라는 주문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면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마저도 특수학급이 없으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은 도덕성에 호소하는 일 이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일반학급의 급당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장에 모든 일반학급의 아동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장애아동이 입급되어 있는 원적학급 반의 학생수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줄여준다던가 원적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 업무를 없애주고, 보조교사를 투입해주거나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적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에게 그 학교의 특수교사가 간담회를 한다던가 연수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해 왔습니다. 일반교사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특수교사 일개인의 재량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원적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해당 교육청에서 이에 걸맞는 연수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이나 각종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연수가 필수로 인정되어 특수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통합교육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장애학생이 원적학급 수업에 앉아 있다고 해서 통합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 하에 완전통합교육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와 함께 일반학급에서 협력수업을 통하여 교육과정 상의 통합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문제의식이나 취지에 절실히 공감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일반교사나 특수교사의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반 초등교육이 “열린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장애아동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문성 없이, 혹은 일반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전문성 없이는 완전통합교육은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교과 연수에서 제외되는 특수교사의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교사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이수하면 특수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사는 자격증은 고사하고 교육대학의 대학원 입학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려는 교사에게 아예 접근금지의 성역이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점진적으로 전담 장학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만 해도 벽찬 실정에 교육청의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때가 많아 제대로 된 특수교육 행정이나 장학지도를 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사의 위치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 역시 소수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충이 많으리라는 것을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가 특수교육 장학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수학급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배치

일단 원적학급 선생님이 장애학생을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을 한다고 해서 통합교육이 다 되었다고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교육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별해서 그 욕구 진단에 따른 개별화된 적절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할 때,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안,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사회적인 관계와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 장애학생의 일반학급 수업참여를 위한 일반교육과정의 수정, 이제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관련서비스(치료교육)의 제공,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의 교육 및 활용 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박승희, 제 5회 이화특수교육학술대회 자료집 p33, 1998) 이 모든 것을 한 학교에 많아야 2명 정도 있는 특수교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특수학급으로 이동시켜 통합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특수교육의 발전방향인 만큼 특수학급에도 전문적인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 치료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수교육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의사, 치료사, 심리전문가등이 배치되어 상시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학부모 상담과 상급학교와의 연계, 지역의 일관성있는 특수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동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4. 재정적 지원

제가 제일 처음 학교에 발령을 받아 선생님들로부터 제일 듣기 거북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반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예요?” “좋겠다. 아이들이 적어서...” 아이들이 적다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일들을 처리해주려 불려 다니는 특수교사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적으니까 교실도 반쪽이면 되고 아이들이 적으니까 일반학급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시청각 기자재나 교단선진화 기자제도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제외되거나 밀려나는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소수를 포용할 만큼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소한 것까지 제외 당할 때의 그 심정이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학급에 있어야 할 시설이나 기자재가 없다면 관리자는 당장은 되지 않아도 다음에 확보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진흥비로 어떻게 해결해 보라거나 학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다행히 그 학교의 특수교사가 인내력이 강하고 끈질긴 성격의 소유자라면 혹은 탁월한 로비스트라면 다른 일반교사의 몇 배의 노력과 끈기로 작은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경력도 학교 내에서 그리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묵살되기 쉽습니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수학급 운영비로 다른 학급에는 의례이 때를 기다리면 나오는 컴퓨터 사고 비디오 사고 카세트 사고나면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특수학급 수까지 고려하여 배당되는 학급 경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남의 떡을 넘보는 부도덕한 교사로 몰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특수교육 진흥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특수학급에도 급당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시청각 기자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II. 맺는 글

법에 언급된 특수학급의 설치목적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다가 교사들과 아이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여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하는 아이들이 있고, 일반학급 수업의 편의를 위해 특수학급으로 밀려나 ‘특수반 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찰을 달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특수학급은 일반학교내의 장애학생을 분리시키는 또 다른 제 2의 질 낮은 특

수학교이거나 아니면 일반학급의 수업을 방해하고 일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수용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라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상의 언급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바른 장애인 교육은 요원할 것이며 또한 이 땅의 참다운 인간교육도 희망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등 특수학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최 세 민(경기기계공고 특수학급 담당교사)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특수교육의 흐름은 보다 강력한 통합교육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교육은 대체로 법적, 사회·윤리적, 교육적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차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배워 장차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며, 비장애 아동은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에게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통합교육이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에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능적·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통합교육은 아직도 물리적 수준의 통합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과 부모가 원할 경우 누구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을 생각해 보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특수학급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권의 보장과 함께 통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 특수학급의 문제를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재 조명해보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특수학급의 현황과 문제점

1. 초·중등 특수학급간 연계성이 결여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던 아동이 중학교 특수학급에 우선 배정이 된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학기초에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비현실적인 특수학급 운영비

현행 특수학급 운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중학교 학급당 60만원선) 적절한 자료를 구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운영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교간의 교류기회 부족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교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적시에 적절한 교육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촉박한 학년초 특수학급 편성 기간

학년초에 특수학급 편성에 따른 각종 현황보고(중학교특수학급)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정확한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학급을 편성하기 어렵다.

5. 1개 학교안의 특수학급 수적 부족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학교당 1학급 내지 2학급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급운영이 어렵다.

6. 특수학급 급당 인원 과다와 직업교육 부재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급당 인원이 과다하고(평균15-16명) 급당 담당교사가 법정인원에 미달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입급 인원이 평균 15명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담당교사는 급당 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효율적인 특수학급 운영이 곤란하다.

또한 직업지도를 담당할 교사와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지도가 어렵다.

7. 특수학급 학생의 수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 미흡

우리 나라 특수학급은 다음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표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수 학급수 및 학급당 평균학생수 변화 (1980-1998)

구분 년도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평균학생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1980	8,094(57.2)	6,045(42.8)	721(67)	355(33)	11.2	17.0
1982	10,679(58.2)	7,665(41.8)	806(61)	521(39)	13.2	14.7
1983	11,404(51)	10,976(49)	864(54.7)	716(45.3)	13.2	15.3
1984	12,518(47)	14,087(53)	929(49.5)	946(50.5)	13.5	14.9
1985	14,315(38.9)	22,534(61.1)	1,042(39.4)	1,601(60.6)	13.7	14.1
1986	15,886(34)	30,876(66)	1,195(33.6)	2,361(66.4)	13.3	13.1
1988	18,390(35)	33,660(65)	1,487(34.6)	2,810(65.4)	12.4	12
1990	19,947(40)	29,989(60)	1,763(35.6)	3,181(64.4)	11.3	9.4
1994	21,262(43.5)	27,669(56.5)	2,006(37.1)	3,400(62.9)	10.6	8.1
1997	22,789(47.4)	25,300(52.6)	2,289(38.7)	3,626(61.3)	9.9	7.0
1998	23,487(48.4)	25,031(51.6)	2,415(39.3)	3,728(60.7)	9.7	6.7

출처: 교육부(1998c.4) 특수교육실태조사서. p.1 발췌 재구성(박승희, 1998 재인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현재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보다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장애학생이 더 많음(48.4:51.6)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재정적 지원은 특수학교 위주로 되어 있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86년을 기점으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급간 학생 수와 학급수의 비율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수학급 학생과 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급 수와 학생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특수학급이 장애학생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제언

1. 초·중등 특수학급간 연계성 확충 필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던 아동이 중학교 특수학급으로 우선 배정될 경우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했던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기초자료를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보내준다면 학기초에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역청에서 특수학급 담당 장학사가 일괄적으로 해당 아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승희(199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수학급의 수가 초·중등간에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즉 중학교 특수학급은 초등학교에 비해 1/4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이 대부분 중학교 특수학급은 기피하거나 적절한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명확히 진단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중학교 특수학급 운영비 현실화

중학교 특수학급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운영비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지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해도 관인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운영비 사용이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비 사용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교간의 교류기회 확충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교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적시에 적절한 교육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학급 편성에 있어 충분한 시간 필요

특수학급 학생을 신입생 중에서 선정할 경우 학급 편성에 따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특수학급 편성 현황을 3월 6일 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조치라고 본다. 적어도 적절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특수학급을 편성하려면 최소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다.

5. 중고등의 경우 학년별 특수학급 운영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은 입급된 학생수에 관계없이 1개 학급 내지 2개 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3개 학년에 걸쳐 특수학급 학생이 있을 경우 복식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하급생간에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효과적인 학급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3개 학년 모두 특수학급 학생이 있는 경우 학년별로 한 학급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급당 인원 하향조정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급당 인원이 과다하고(평균15-16명) 학급당 담당교사가 법정인원에 미달된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입급 인원이 평균 15명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담당교사는 급당 1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체 특수학급 급당 평균인원 6.7명(1998년 현재)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효율적인 특수학급 운영이 곤란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활동을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해야하며, 급당 교사도 법정인원에 충족할 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7. 직업 진로지도를 위한 시설과 교사 확충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직업지도를 담당할 교사와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직업지도 교사를 적정인원 배치하고 실습공간을 확보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분리교과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평가원칙 마련

특수학급 학생이 원적학급 학생과 같이 수업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실기평가와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반학생과 실습을 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실습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습점수는 실습담당교사가 부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습담당 교사로서는 이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에 실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실기평가를 하여 이 점수에 근거하여 실습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점수 반영비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특수학급에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여 점수를 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

특수학급 학생이 배치된 원적 학급의 학생 수를 조정하는 문제와 교실환경을 구성하는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총과 같은 기관에서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을 공모한다든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방법 등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특수학급의 입급대상을 정신지체 위주에서 다른 영역(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까지 확대 필요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 대부분이 정신지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영역의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신지체 학생보다 오히려 청각장애나 지체부자유학생이 통합교육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독립 운영 필요성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독립 운영해야하며 각 지역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시화하여 여기에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진단평가의 기능보다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장학활동을 통해 특수학급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교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특수학급의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특수학급의 운영형태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만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대상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학급에 입급한 학생들의 라벨링에 따른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육 사례

사례 1

1. 장애유형

다운증후군

2. 입학 시 장애학생 능력상태

의사소통 가능, 수셈은 덧셈, 뺄셈은 5까지 가능

3. 교육환경

특수학급 있으나 학습부진아 중심 운영

4. 교육방법

대부분이 학습부진아인 학생들은 등교해서 1-3교시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4교시 한시간만 원반에서 공부하는 상태로 운영중이나 이 학생의 경우는 특수학급으로 가면서 엄마가 원반과 특수학급에 각각 2교시 교육

5. 교육자의 자격

비전공자로 우대가산점 적용자

6.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1) 입학초기 '이런 아아는 특수학교로 가야한다. 특수학교를 알아봐 주겠다'며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전학을 권유

2) 엄마가 수업일체를 참여하는 조건으로 원반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원반 선생님과 특수학급 선생님이 서로 아이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떠넘기는 상황이 1학기내 계속됨

3) 아이와 함께 수업일체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과 원반 수업내용을 따라하기 힘든 상황으로 특수학급으로 입급을 원해 2학기 들어 원반선생님과 논의된 것은 엄마가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수학급에 입급 시키는 것이었으나 특수학급의 선생님은 '좀 두고보자'는 것이었다.

4) 엄마가 학생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실행된 특수학급으로의 입급은 '학생이 엄마 말만을 듣는 아이라며 엄마가 따라와 수업을 도와 달라'는 특수학급 선생님의 요구로 계속 아이와 함께 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엄마가 임신으로 병원을 가야되는 경우 수업시간에 동참을 못하는 경우가 있자 원반에 와서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교사의 지속되는 불평을 원반에 있는 학생으로부터 전해들음.

2. 특수학급 담당자의 문제점

1)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관계로 학생이 글씨를 쓰고 수셈 하는

것을 보며 '신기하다'는 표현을 씀.

2) 장애학생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원이 가장 많은 2학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방법은 '이 아이들은 반복해야 머리속에 들어간다'며 칠판에 써놓은 내용을 2-3일씩 반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 개별교육 교재를 준비해 따로 가르쳤고, 교사는 이따금 엄마가 준비한 교재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할 뿐 교사 자신이 교육자료 준비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3) 특수학급에 엄마의 봉사(보조)는 다른 엄마에게도 교사가 요구한 것이나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엄마들이 자청해서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며 보조요구 사실을 은폐함.

4) 특수학급으로 온 뒤에도 3,4교시의 원반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특수교사가 원반 3교시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했고, 이유인즉 장학사 시찰이 그 시간에 나오는데 아이가 원반에 있는 경우 혹, 이상행동이나 자리가탈을 할 경우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5) 학급봉사(보조)에 같이 참여했던 엄마가 직장을 갖게 되어 못나오게 되자 11월부터 교육참여를 안하고 있으며 현재 엄마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 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은 원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다.

6) 특수반 교실에는 교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교사들이 수업시간 중에 들어와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휴식의 공간으로 드나들고 있는 형편으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다.

사례 2

1. 장애유형

자폐

2. 입학 시 장애학생의 능력상태

표현능력 가능, 인지능력은 4-5세 정도이나 산만한 편

3. 교육환경

특수학급 있음.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원반선생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를 시도한 특수교육 전공한 전임 선생님의 노력으로 학교전반에 걸쳐 장애아에 관한 이해도는 높은 편

4. 교육방법

원반과 특수학급 병행

5. 교육자의 자격

고학년은 특수교육 전공자, 저학년은 비전공자로 우대가산점 적용자이며 보직을 맡고 있음.
6.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 1) 입학한 후 5월 중순까지 엄마와 함께 원반생활을 했으며 특수학급 입급을 원함
 - 2) 특수학급 입급 1주일만에 엄마가 집안 일로 학교에 못간 날, 밖으로 나가는 사고발생 (1교시 원반수업이 끝나고 2,3교시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보직을 맡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원반에 있다가 발생함)
 - 3) 부모에게 '이렇게 심한 이는 특수학교에 가야된다. 특수학교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아이가 밖으로 못나간다'며 특수학교로 전학할 것을 강요
 - 4) 교감면담 권유하며 '교감 선생님의 의지로 특수학급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함
 - 5) 아이가 다닌 조기교육실에 사람을 보내어 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낸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으나 오히려 지시 받고 간 교사가 설득을 당함.
 - 6) 이후 부모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와 엄마가 학급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용.
 - 7) 외부현장 학습 시에는 '손이 모자란다'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데리고 가기를 거부
7. 특수학급 담당자의 문제점
 - 1)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이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이해가 전무한 점
 - 2) 학교 내에서 맡고 있는 보직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탓에 학급수업을 경안시 하는 것은 물론이며 교육계획이나 자료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8. 통합의 성공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와는 반대로 원반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배려가 지극한 것으로 원반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운동회 날 원반학생들의 열렬한 응원에서 학급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친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엄마가 확인.

사례 3.

1. 장애유형

자폐
2. 장애학생의 능력상태

읽고 받아쓰기 가능, 의사소통은 가족과는 가능
3. 교육환경

특수학급운영, 작년까지 학습부진아가 전부 있음
4. 교육방법

1,2교시는 특수학급에서 3,4교시는 원반에서 교육
5. 교육자의 자격

초등학교 교사자격자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이며 보직을 맡고 있음.
6.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 1) 입학식 다음날 원반 선생님이 '안 말겠다'며 아이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으며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자 원반 학생들에게 일제히 아이를 쳐다보게 한 후 '나가'라고 소리치며 복도 밖으로 쫓아내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아이가 놀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급기야는 엄마에게 '이사를 가라'는 강요. 3월 한달 내 아이를 벌을 세웠고, 급기야는 4월 말 부터 5월을 특수학급에서 1,2교시만 하고 귀가하는 상황이 됨.
 - 2) 교감 선생님과 상담으로 원반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교육을 받다가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장애아동을 맡은 경험이 있는 원반으로 배정 받음.
 - 3) 2학년이 되면서 원반과 특수학급 교육을 시작함.
7. 특수학급 담당자의 문제점
 - 1)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으며 의욕 또한 없어 개별교육계획이 없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재에 의존하거나 부모에게 교육자료 요구.
 - 2) 보직을 맡고 있는 관계로 자신이 바쁘면 특수학급에 오지 못하게 함.
8. 통합성공의 사례
 - 1) 2학년에도 원반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함.
 -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느닷없이 때리거나 꼬집는)을 할 경우 '친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여서 여러분의 잘못을 미리 알고 벌을 주는 것이므로 친구가 때리면 무엇을 잘못했나를 생각하고 반성해야한다'

- 엄마가 학급에 금붕어를 사다 놓자 '금붕어'에 대한 글짓기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으로 장애친구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배려를 함.
- 학급아이들에게 40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서 대화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교육시킴

사례 4.

1. 장애유형
자폐
2. 입학 시 장애학생의 능력상태
언어수용능력 있음. 인지능력 3-4세. 산만하고 고집이 센 편.
3. 교육환경
특수학급 2개 반 있음, 학생수가 많음
4. 교육방법
원반과 특수학급 병행
5. 교육자의 자격
저학년 교사는 특수교육 전공자, 고학년은 비전공자.
6.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원반교사가 장애아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를 위한 개별 교육계획 없이 1년 동안 방치
7. 특수학급 담당자의 문제점
원반선생님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약하고 소극적인 자세, 발언권이 약함
8. 통합의 성공
 - 1) 2학년에 원반 선생님의 지극한 배려와 이해가 있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편임에도 아이의 이상행동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해하려는 자세로 아동을 대함
 - 2) 반 친구들을 1주일 단위로 '도우미'를 선발해 아이를 돕도록 함. '도우미'의 조건은 첫째, 자발적일 것 둘째, 자신의 일을 다해놓고 남는 시간에 도움을 줄 것 등으로 도우미의 역할은 아이를 위해 책 읽어주기, 컴퓨터로 책의 글씨를 확대해 수업시간에 제공하며 시간을 활용해 별도로 가르쳐주기, 소품이나 현장학습 등 외부행사에도 엄마참여를 거부하고 도우미를 활용함.

사례 5.

1. 장애유형
자폐
2. 입학 시 장애학생의 능력상태
언어능력이 다소 어려운 편, 인지능력 받아쓰기 가능
3. 교육환경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2년을 다니다가 이사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전학
4. 통합교육의 성공사례
 - 1) 장애를 발견하고 조기교육실을 다니며 일반통합교육을 준비하였고 조기 교실 선생님은 일반학교 통합을 권하지 않았으나 엄마의 판단으로 일반학교에 보냄.
 - 2)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전학 후 어려움은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하며 학생의 입급을 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선생님도 많은 대화로 이해를 구해 교실수업 가능
 - 3) 신학기가 되면 아이를 맡게 된 선생님께 아빠와 함께 방문하여 아이 상태를 설명하고 협조요청. 이 같은 노력으로 비교적 6학년까지 담임 선생님들의 인내심 있는 이해로 통합에 어려움은 없었음.
 - 4) 엄마는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는 과목인 체육, 음악, 미술과 운동회, 캠프, 소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엔 엄마가 참여하며 담임 외에 선생님들과도 친분이 생겨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5) 반 친구들을 집에 자주 놀러오게 하거나 친구 집에 가서 놀게 하고 학급 엄마들을 만나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함.
 - 6) 이 같은 노력으로 입학 당시 문제가 있던 언어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도 책을 읽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향상되었다.
 - 7) 요즘 엄마가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밖에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 외부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중이다.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

백 영 희

길동초등학교 윤경어머니

부엌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학교는 거대한 성처럼 나를 쳐다본다. 겨울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차가운 바람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뛰어 다니며 지르는 환호성은 따뜻함을 부른다.

가방을 메고 신주머리를 든 아이들, 조잘대며 친구들과 속삭이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학교가 나와 윤경이를 오라고 손짓을 한다.

우리 가족이 공주라고 부르는 윤경이는 곧 3학년이 된다. 2학년은 마법에 걸린 듯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일년이었다. 지난해 봄, 어떤 선생님일까? 하는 궁금함을 갖고 2학년 첫날을 맞았다. 2학년 1반, 복도의 추운 공기가 두꺼운 코트로 막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떨림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안경을 쓰시고 스카프를 두른 키가 작은 선생님이 윤경이 담임선생이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윤경이 엄마입니다.”

“네, 알아요. 윤경이”

하시며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교실로 들어가셨다. 이튿날 선생님께서 윤경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윤경이에 대하여 잘 모르니 윤경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할 수 있는 것 - 노래를 좋아한다. 한글을 배

우고 있는 중이고 숫자는 1에서 10까지 쓴다. 색깔은 안다. 이 정도였다. 거기에 나쁜 버릇도 썼다. 가장 문제였던 것이 책을 찢고 흔드는 거였다. 1학년 내내 책 전체를 4번 살 정도였다. 혼도 내고 벌도 세웠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굳은 얼굴로 선생님과 마주한 나는 긴장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적어간 것을 읽으시면

서 “즐거운 생활시간은 좋아하겠네요. 노래도 좋아하고 색도 안다니”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4시간 다 원반에 있지 않고 수학기간에는 3-8반(특수교사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보낼 것이고, 자리는 선생님 책상 바로 앞에 앉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으니 일반애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윤경이와 나의 2학년이 시작되었다.

다음의 사례는 '현장특수교육 열린마당'에 기록된 통합교육 성공사례입니다. 새학년이 되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동안 걱정과 조바심으로 몹쓸을 앓는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 때문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뿌리치고 일반학교를 선택은 하였지만, 장애자녀의 부모님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학교가 마치 망망대해처럼 불안하고 위태롭게만 여겨지는 것이다. 그곳에 단 한분이라도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은 안도하고 감사한다. 이번 열린 마당에는 고마운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어머니들의 글을 올린다.

처음에는 한글을 다 배우지 못한 윤경이의 알림장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써 주도록 했고 가정통신문은 선생님께서 알림장에다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 주셨다. 난 비록 윤경이가 한글을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알림장 정도는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선생님께 부탁했다.

“선생님 알림장 정도는 급식 끝내고 남아서 윤경이가 쓰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지우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안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서 이동식 흰 칠판을 2학년

끝날 때까지 바로 앞에다 옮겨 주셨다.

윤경이는 수업 중에서도 음악시간을 가장 즐겼었다. 가끔 국어시간에 리듬악기를 꺼내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는 “윤경아, 노래는 불러도 되지만 리듬악기는 사물함에 갖다 놓아라.”하신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윤경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기회를 주셨다. 동요부르기 시험을 볼 때도 잘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부르게 해주셨고, 급식당번, 청소당번, 월반장도 기회를 주셨다.

체육시간에 조별로 릴레이 시험을 할 때도 윤경이도 똑같이 달리게 하셨다. 뚱뚱하고 느린 윤경이가 소속한 조가 항상 꼴찌였지만 반 친구들은 너무 재미있어 했다. 1등에게만 만세가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킨 조가 만세를 불렀기 때문이다.

2학기 시작 무렵부터 운동회 연습이 시작됐다. 전체가 다하는 무용은 동작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동작이 느린 윤경이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테이프를 빌리고 무용동작을 순서대로 종이에 적어서 집에서 연습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운동회는 정말 싫었다. 시간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동회 날이 왔다.

2학년은 달리기부터 시작했다. 선생님은 달리기 같이 할 사람을 정해 주셨다. 아이들은 선에 발을 내 디디고 양쪽에서 손을 꼬옥 잡고는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도 반도 못 왔고 그것을 본 나는 뛰어들어가 아이

들을 먼저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자기들이 같이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학년의 응원을 받으며 같이 달렸다.

무용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곧 이어졌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선생님 윤경이-?” “윤경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들어가서 같이 할거예요.” 하시면서 아이들 사이에 있는 윤경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용순서를 같이 하시는데 난 차마 끝까지 똑바로 보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웠다.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 윤경이가 친구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논다. 지난 1년간 윤경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책을 찢거나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는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는 슬기로운 생활 책을 꺼낼 수 있다. 체육시간에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어설피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1년간 노력한 결과 알림장도 조금만 도와주면 혼자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새삼 느껴진다. 또 있다. 반 친구들도 윤경이를 똑같은 친구로 생각하고 도와준다. 너무나 예쁘고 고마운 친구들이다.

이제 나와 윤경이는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 나를 당당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윤경이를 사랑스런 제자로 받아주시는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기 때문이다.

현재가 사랑 받기까지

민 현 옥

정호원초등학교 현재어머니

현재는 바다와 나무와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현재가 아파트에 감금되어 사는 것이 너무 딱해서 우리 부부는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천시에 집을 짓고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큰 도시와는 달리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시골입니다.

현재가 다니게 된 학교는 한 학년에 두 학급씩 인 작은 시골학교로 낡은 건물이지만 햇빛이 가득하고 아늑한 학교였습니다. 현재의 담임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로 좋으신 여선생님이셨습니다. 현재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화에서 장애를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특성을 설명해 드렸더니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시

며 장애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그때마다 어머니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현재를 맨 앞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주 총명해 보이는 여자아이를 짝으로 배정하셨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만 앞서는 제게 너무 과잉보호하신 것 같다고 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반향어를 쓰는 현재가 신기했는지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 둘씩 현재가 왜 그런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반 아이들에게 “팔 다리가 없고 불편한 사람만 장애인이라 아니라 몸은 성하지만 뇌에 이상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되는 사람도 장애인이다. 장애가 있다고 우리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라고 설명해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인 아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현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43통의 편지가 전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들 현재와 친하게 잘 놀아주고 싶고 무엇이든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만 있다면 현재의 앞날이 걱정보다는 희망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43통의 편지는 곱게 스크랩되어서 현재 책상 위를 든든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조회시간에 현재는 자기 반 맨 앞에서 있습니다. 주의를 받으면 단 몇 초간만 앉절히 있다가 이내 움직이던 아이가 점점 부동자세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회가 끝

나고 체조시간에는 제법 여러 가지 동작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음악시간에는 오르간 소리와 아이들 합창소리에 귀를 막고 있던 아이가 귀동냥으로 들은 노래를 곧잘 흥얼대곤 합니다.

미술시간에는 제법 흥미를 보이며 그림도 그리고 공작품도 만들어 옵니다. 물론 끝까지 완성해가지고 오기까지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체육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운동장으로 나가서 친구들이 하는 모든 운동에 참여합니다. 행동이 굼뜨고 조금 어눌하여도 끝까지 수행해 냅니다. 참으로 뿌듯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놀러대며 장난을 칠 법도 한데 저는 그런 광경을 단 한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의 크나큰 배려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지 말고 혼자 할 수 있게 놔두라고 하다하다 안되면 조금만 도와주라고. 그 친구들은 어찌 그리 마음도 예쁘고 인내심도 많은 지 끝까지 곁에서 지켜봅니다. 덩치가 큰 현재를 친동생 다루듯 잘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과자나 빵을 챙겨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와 무엇이든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생소한 것뿐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알려 나간다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한다면 함께 하는 세상이 분명 되어지리라 굳게 믿어 봅니다.

통합교육이 만든 형래의 새 생활

윤 상 미

고잔초등학교 형래어머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형래와의 10년을 생각합니다. 다운중후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교육하며 찾아 온 고잔초등학교, 연고도 없는 안산시에 이사와 특수학교 사정상

정상 입학할 수 없는 아이를 그저 특수학급이 있고 집과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택해서 다니게 되었던 이학교가 형래에게 큰 교육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형래가 입학하던 해에 전근 오신 고은진 선생님을 만난 것도 큰 행운이었고요. 형래는 사회성이 좋아 1학년은 원적반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2학기 때 토요일활동만 특수반에서 보냈습니다.

형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행동이 늦은 형래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같은 반 아이들에게도 형래가 할 수 있는 건 해주지 말고 옆에서 가르쳐주며 기다리라고 가르치시고 뭐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발전된 모습으로 2학년을 맞아 시간제 학습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형래가 3학년이 되던 작년 초 고은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완전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특수반은 학습도움실 형태로 우리 아이들을 원적반에서 일반 아이들과 함께 수업시간표대로 수업하면서 도움실 선생님들과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원적반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협력교수제로 하고 한 학년을 모두 한 반으로 하는 대신 일반아이들 수를 줄여 담임 선생님의 일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 모두를 골고루 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실 때는 정말이지 웬 엉뚱한 생각이냐 하고 참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한 반에 한 명도 사실 힘겹다면 힘겨운 일인 데 한 학년에 속해 있는 서너 명의 아이들 모두를 같은 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에겐 황당한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저의 처음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나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처음 시도되는 완전통합교육, 처음엔 담임 선생님, 아이들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일반 아이들의 인원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개성이 강한 우리 아이들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긴 힘들었던 것이지요. 원적반 아이들도 하필 내가 저 애들과 한 반이 되었을까 생각했을 거구요. 하지만 여름 뒤뜰 야영에 동참해서 함께 밥 해 먹고, 게임하고, 한 이불 덮고 잠을 자면서 이런 저런 벽이 허물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원적반 학부모 공개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아이들만은 아니라는 걸 일반아이들의 엄마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반 선생님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보면서 일반 아이들의 마음도 변하고 그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한 변화시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은 도우미 선생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반에 들어가 우리 아이들은 물론 일반 아이들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며 수업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 학교 도우미 교사들은 이 일은 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선생님을 정해 매일 아침마다 도움실 선생님들과 그날의 학습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연말 학습 발표회 때, 우리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일반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포크댄스를 너끈히 해내던 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적반 아이들이나 우리학교 일반 아이들은 이런 저런 활동도 같이 하고 늘 함께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까 이제 도움실 아이들을 별스런 아이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하는 마음들은 작년의 통합교육이 아니었다면 조금은 얻어내기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적반 아이들은 도움실 일정에 포함된 견학이나 현장학습에 동참할 수 있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사회성을 기르는 데 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 아이들의 엄마들도 이제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닌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회라는 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건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회피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대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든 권리를 갖고 태어난 인간인 만큼 초등학교 때 부터라도 서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 나간다면 더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통

해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은 발전되어가고 일반 아이들은 이해와 사랑을 배워 예쁜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딴 세계의 아이들이 아니고 그저 내 친구라는 사실, 조금의 관심과 이해로 이끌어주면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된 고잔초등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현화 선생님의 강한 의지와 우리 아이들에 좀 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한 해의 통합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것은 고은진 선생님과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적학급 담임선생님의 역할 또한 너무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눈길, 말 한마디가 일반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서 사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우리 엄마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헤아리기라고 하듯이 너무나 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 되고자 노력해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묘한 조화

윤 경 희

대전 중앙초등학교 (낙원 어머니)

우리 아들 낙원이는 어릴 때 자폐 1급 판정을 받았다. 취학연령에 달했을 때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나'를 고민할 무렵 대전시에 있는 정신지체인 부모연합회에서 '통합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상담을 받고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입학시켰다.

하지만 막상 입학을 시키기는 했지만 학교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없었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또한 입학이후 3,4월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도록 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낙원이 스스로 착석 자체가 어려워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5월부터는 1,2교시 수업은 불참하게 되었고, 3,4교시만 부모인 내가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참관수업을 받게 되었다. 들이켜보면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다. '이 상태로 통합교육이란 것을 시켜야 하는지,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갈등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나를 힘들게 하였다.

더욱이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 말고도 책임져야 하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더 쏟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낙원이의 1학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당초 통합교육에서 기대해보았던 것과는 달리 일반 아이들과의 완전히 격리된 학교 생활의 연속이었다.

2학년이 되기 전 부모인 나로서는 '통합교육을 포기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 특수학교도 많이 알아보았다. 하지만 특별히 특수학교라고 해서 낙원이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질 않았고, 일단 선택해본 것이니 조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갈등을 겪고 있을 무렵 그 때 마침 중앙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말이 들려왔고, 그 특수학급이 생기면 낙원이가 다니기에 조금은 수월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동안 교육의 목표를 낙원이 스스로의 착석에만 집중시켜보자고 혼자 다짐을 했었다. '그래, 적어도 착석만 되면 된다. 다른 것은 욕심 내지 않겠다.' 하면서 새 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담임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초임으로 학교를 발령 받으신 선생님이었다. 알고 보니 대전시의 해당 교육청에서 장애아동을 맡게되는 원반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 장애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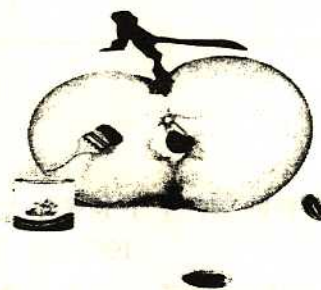
을 맡게 되는 원반선생님을 모두 초임으로 배정하였다는 뒷 얘기를 듣게되었다.

선생님께서 초임 이어서인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데 열의를 갖고 임하셨고 지금은 우리 낙원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 선생님 역시 초임으로 발령 받으신 분이어서, 비슷한 연령에 원반과 특수학급 선생님들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학년이 된 후 약 1주일간 학교에 1학년 때처럼 낙원이를 데리고 등하교를 실시하였는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제 학교에 안 오셔도 되겠어요."라고 하셨다. 참 이상하게도 착석 자체가 안되던 낙원이가 2학년이 되고 부터는 착석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불안하였지만 선생님만 믿고 학교에 가는 것을 1년하고도 일주일만에 그만 두게 되었다.

낙원이의 수업은 특수학급 선생님과 원반 선생님, 그리고 낙원이 세 사람의 절묘한 조화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학급의 인원이 아직은 세 명이어서 가능하겠지만, 특수학급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원반에 들어오셔서 낙원이 옆에서 수업지도를 해주신다. 2학년부터 낙원이는 국어, 수학시간만 특수학급에서 개별 지도를 받고, 나머지 수업은 특수학급 선생님과 함께 원반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학만 특수학급에서 실시하고, 국어까지도 원반에서 수업을 받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국어 시간엔 특수학급 선생님 지도 덕택에 웬만한 받아쓰기도 척척 해내고, 수업종이 울리면 스스로 특수학급을 찾아간다는 낙원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비로소 통합교육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원반선생님이 낙원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원반선생님은 낙원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낙원이가 고집을 피우더라도 원반선생님은 끝까지 낙원이에게 "너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거야."라고 낙원이가 수긍할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부모인 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야단치고, 똑같이 매질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드려서인지 낙원이는 원반선생님 말씀을 제일로 무서워하는 듯하다.

또한 발표 학습 때에도 낙원이 역시 예외로 두시지 않으신다. 낙원이가 손을 번쩍 들면 우선적으로 낙원이를 시켜 발표하게 하고, 답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특수학급 선생님과 함께 옳은 답변을 유도하여 낙원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낙원이를 불러주시고, 어떤 일에도 낙원이가 빠지지 않게 배려해주신다. 예를 들어 운동회에도 꼭 낙원이를 불러내셔서 참여를 유도하시는 선생님 노력에 낙원이는 이제 제법 초등학교 티가 나고 있다.

가끔 학교 선생님과 메모장을 주고받는 데 그곳에는 선생님이 낙원이의 태도 변화나 특이한 사항들을 적어보내 주신다. 지금은 비록 옆에서 유도하고 있지만 혼자 스스로 일기를 쓰고 받아쓰기를 제법 해오고, 알림장도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스스로 받아 적어오는 낙원이를 보면서 뿌듯하기까지 하다.

흔히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있어 정신지체나 다운아이드까지도 통합교육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인 나는 조금 의아해한다. 공격성이 있는 자폐인 낙원이 같은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차츰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어떤 아이가 통합교육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맡게 되는 선생님들의 자세, 관심이 아이를 그만큼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정책적 배려가 통합교육의 중요한 성패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힘겨우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원반선생님과 특수학급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자신감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고민하십니까?
빅덤벨(BIGDUMBBELL)과 상의하십시오."**

■ 모집 안내 ■

빅덤벨은(BIGDUMBBELL) 학습부진 및 운동신경이 떨어져 자신감,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이나 자폐아동 또는 자폐 증세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신체활동을 통해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얻게 해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동의 자신감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께서서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상담과 알찬 교육으로 좋은 기대를 약속드립니다.

1. 모집인원

- *학령기반(6세/12세)
- *중고생반(12세 이상)

2. 교육시간

- 주5회/월-금
- 주3회/월 · 수 · 금/화 · 목 · 토
- 주2회/화 · 목
- 선택 결정

3. 교육내용

	기본교육	초급교육	중급교육	상급교육
교육기간	2주/4주	2/3개월	3/5개월	6개월
교육내용	기본 자세 교정 신체 자극 주기	야외학습 올동체조 기초 체력 향상	야외학습 소근육 · 대근육운동 운동 기술 향상교육	대 · 소근육응용동작 수영 체조응용동작 기능종목

4. 문의

전화 상담 후 상담시간을 결정하여 내원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빅덤벨(BIG DUMBBELL) ☎ (02) 418-739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00-1 성지빌딩 3층



통일 우정 810

대한항공 (항공 총회 부설) 업무 지원 센터

항공 808 5호선

1. 요양시설 등

항공 지원센터 두산 빌딩 12층

TEL 147-1001 (02)

정보 제공자 810

대한항공 (항공 총회 부설) 업무 지원 센터
항공 808 5호선
1. 요양시설 등
항공 지원센터 두산 빌딩 12층
TEL 147-1001 (02)

810-808-810 810 808 5호선 810

정신지체인 서울 부모회

137-130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4-9 진우빌딩 3층
전화 (02) 943-3874, (02)914-1690 / 전송 (02)914-1690

정신지체인 전국 부모연합회



대전시 중구 대흥1동 251-5 씨엔유 빌딩 1층
전화 (042)257-2854 / 전송 (042)257-2855